

# 인용문과 나의 설명을 구분하는 자료 카드

똑똑 · 에디터 이음 · 발행 2026.09.30

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

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 원문이 말하지 않은 원인이나 전체 국민에 대한 결론을 내 설명 칸에 보태지 않습니다.

## 쉬운 설명

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 직접 인용에는 따옴표와 위치가 필요하고 바꿔 쓴 설명에도 출처가 필요합니다.

## 핵심

- 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
- 직접 인용에는 따옴표와 위치가 필요하고 바꿔 쓴 설명에도 출처가 필요합니다.
- 원문이 말하지 않은 원인이나 전체 국민에 대한 결론을 내 설명 칸에 보태지 않습니다.

## 핵심 질문 · 대상과 범위부터 읽기

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 자료 카드의 첫 칸에는 원문을 정확히 옮기고 따옴표와 위치를 붙입니다. 둘째 칸에는 원문의 대상·기간·방법을 적습니다. 셋째 칸에 내 말로 뜻을 설명하고 넷째 칸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질문을 남깁니다.

## 개념 구분 · 같아 보이는 말을 나누기

직접 인용에는 따옴표와 위치가 필요하고 바꿔 쓴 설명에도 출처가 필요합니다. 내 해석은 자료가 말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. 원문이 “응답자 50명 중 20명”이라면 계산은  $20/50=40\%$ 입니다. 카드의 설명을 “전체 학생의 40%”로 바꾸면 분모가 응답자에서 전체 학생으로 확대됩니다. 숫자는 같아 보여도 주장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.

## 적용 사례 · 가상의 장면에서 판단하기

가상 보고서에 “응답자의 40%”가 있다면 카드에는 원문·페이지, 조사 대상과 시기, 내 설명 “응답자 집단에서”를 나눠 적습니다. 직접 인용을 줄였다고 출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남의 연구 결과나 해석을 내 말로 풀어 썼다면 원문의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. 반대로 내 추론은 원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따옴표 안에 넣지 않습니다.

## 비교표 · 이 글의 세 가지 판단 기준

| 확인 항목 | 본문에서 확인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읽을 때 주의할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핵심 범위 | 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          | 직접 인용에는 따옴표와 위치가 필요하고 바꿔 쓴 설명에도 출처가 필요합니다.      |
| 가상 사례 | 가상 보고서에 “응답자의 40%”가 있다면 카드에는 원문·페이지, 조사 대상과 시기, 내 설명 “응답자 집단에서”를 나눠 적습니다. | 원문이 말하지 않은 원인이나 전체 국민에 대한 결론을 내 설명 칸에 보태지 않습니다. |
| 후속 확인 | 카드를 원문/맥락/내 설명/남은 질문 네 칸으로 나누고 발표문에 옮길 때 출처 식별자를 붙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| 추측은 가능성으로 표시하고 원문이 증명한 사실과 섞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|

본문 설명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만든 표입니다. 기관 원문의 도표나 실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.

## 실행 순서 · 직접 작성하는 활동 순서

- 준비: 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
- 실행: 카드를 원문/맥락/내 설명/남은 질문 네 칸으로 나누고 발표문에 옮길 때 출처 식별자를 붙입니다.
- 검토: 원문이 말하지 않은 원인이나 전체 국민에 대한 결론을 내 설명 칸에 보태지 않습니다.

본문의 학습 절차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식입니다.

## 한 단계 더 · 조건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

발표 전에 카드 네 칸을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. “원문은 여기까지, 내 설명은 여기부터”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장을 나누거나 인용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. 추측은 가능성으로 표시하고 원문이 증명한 사실과 섞지 않습니다. 원문이 말하지 않은 원인이나 전체 국민에 대한 결론을 내 설명 칸에 보태지 않습니다.

## 깊이 읽기 ·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기

“응답자의 40%가 선택했다”는 문장을 쓰려면 문항이 단일 선택인지 복수 선택인지 확인합니다. 같은 40%라도 여러 항목을 고를 수 있었다면 전체의 구성비로 그릴 수 없습니다. 자료 카드의 맥락 칸이 이 차이를 지킵니다.

페이지 번호가 없는 웹자료에서는 문단 제목과 접속일을 적습니다. 나중에 페이지가 바뀌거나 문서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발표 자료에는 문서 제목과 기관명도 남깁니다. URL만 붙이면 독자는 어느 문장의 근거인지 찾기 어렵습니다.

## 직접 확인 · 원문과 사례에 적용하기

카드를 원문/맥락/내 설명/남은 질문 네 칸으로 나누고 발표문에 옮길 때 출처 식별자를 붙입니다. “조사에 참여한 50명 중 40%”라고 범위를 바로잡습니다. 전체 학생을 말하려면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
## 직접 생각해 보기

원문이 “참여한 50명 중 20명”인데 내 설명이 “전체 학생의 40%”라면 무엇을 고칠까?

---

---

---

---

---

## 확인 설명

“조사에 참여한 50명 중 40%”라고 범위를 바로잡습니다. 전체 학생을 말하려면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인용문과 내 설명을 어떻게 구분할까요?

자료 카드는 원문의 문장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분리해 출처의 목소리가 내 주장으로 둔갑하지 않게 합니다. 직접 인용에는 따옴표와 위치가 필요하고 바꿔 쓴 설명에도 출처가 필요합니다. 내 해석은 자료가 말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.

원문이 “참여한 50명 중 20명”인데 내 설명이 “전체 학생의 40%”라면 무엇을 고칠까?

“조사에 참여한 50명 중 40%”라고 범위를 바로잡습니다. 전체 학생을 말하려면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
내 말로 바꿔 쓰면 출처가 필요 없나요?

원문이 말하지 않은 원인이나 전체 국민에 대한 결론을 내 설명 칸에 보태지 않습니다. 카드를 원문/맥락/내 설명/남은 질문 네 칸으로 나누고 발표문에 옮길 때 출처 식별자를 붙입니다.

## 원문과 출처

- 미국 의회도서관 · 1차 자료 분석 도구 — <https://www.loc.gov/programs/teachers/getting-started-with-primary-sources/guides/>: 관찰·성찰·질문으로 원문을 분석하는 절차;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.

- Digital Inquiry Group · Civic Online Reasoning — <https://cor.inquirygroup.org/>: 온라인 자료의 출처와 주장을 검증하는 교육 자료;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.

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: <https://www.dokdok.co/about#editorial>

온라인 원문 ·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https://www.dokdok.co/reading/quotation-and-my-explanation-card>